

『素問·評熱病論』의 “邪之所湊，其氣必虛”의 解釋法에 對한 研究

방정균*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외과학교실

對於『素問·評熱病論』之邪之所湊其氣必虛之解釋法的研究

方正均*

尙志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黃帝內經』有以陽氣爲主來理解人體的觀點. 根據此觀點, 在發病的觀點也有以陽氣爲主來理解疾病的發生. 『素問·評熱病論』有“邪之所湊, 其氣必虛”的句, 一般是來解釋人體的正氣虛之後邪氣聚, 所以在治法也強調了扶正爲主的方法. 但「評熱病論」主敘述了外感熱病, 所以在本句的解釋, 要以邪氣侵襲爲主要原因的分析. 主要敘述外感病的『傷寒論』, 以祛邪作爲主治法, 而且張子和理解了以邪氣爲發病的主要原因, 所以在治法上強調了祛邪的方法. 本句的解釋須要以『傷寒論』和張子和的醫論爲中心, 所以邪氣聚的地方, 其正氣必虛, 這解釋才要好.

Key Words : 邪氣, 正氣, 扶正, 祛邪, 張子和

I. 서론

韓醫學 最高의 經典이라 일컬어지는 『黃帝內經』(以下 『內經』으로 略稱)은 어느 한 시대, 또 어느 한 개인에 의해 저술된 서적이 아니다. 상고시대부터 시작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누적된 의학 경험이 戰國時代-東漢末 무렵에 集大成되어 정리된 것으로¹⁾ 인식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전 시기의 의학 경험이 근간을 이루고 있지만, 정리된 시기 당시대의 철학 사조가 깊이 투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전국시대는 弟子百家가 爭鳴한 시기로 동북아 역사상 가장 많은

학술 유파가 치열하게 논쟁하였던 시기이다. 이 시기에 陰陽家와 五行家도 하나의 학술 유파로 자리 잡았고, 또 당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內經』은 제자백가의 내용 가운데 이 음양가와 오행가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또 道家의 영향도 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추정은 『內經』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특히 陰陽과 五行은 『內經』 이론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 외에도 『內經』의 내면에 흐르고 있는 중심 사상이 있으니, 인체를 이해함에 있어 陽氣 위주의 사상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특히, 「生氣通天論」篇과 같은 경우는 篇 전체가 陽氣를 위주로 기술되고 있다. 이러한 陽氣 위주의 관점은 發病觀에도 영향을 미쳐, 질병이 발생하는 기전을 설명함에 있어 正氣虛라는 인체 내부의 조건을 강조하고 있다. 正氣虛를 질병의 발생과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외부 邪氣의 침습에 대항하여 인체를 방어할 만한 陽氣가 부족하기 때문에

* 교신저자 : 방정균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외과학교실033-730-0666
E-mail : bjkdwcw@mail.sangji.ac.kr

1) 陳大舜 外 역음·맹웅재 外 옮김, 『各家學說』. 서울, 대성의학사, 2001, pp.82-83.

질병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근간으로 하여 『素問·評熱病論』의 “邪之所湊, 其氣必虛”²⁾의 구절에 대해 주석가들은 질병 발생에 있어 正氣가 虛해진 것을 선행 조건으로 풀이하고 있다. 그러나本篇의 내용이 外感熱病을 주로 서술하고 있다는 고려해 볼 때, 邪氣를 중심으로 한 해석도 가능하다. 이에 논자는 『傷寒論』과 張子和의 發病觀을 본 구절의 해석에 도입하여 기존의 해석법과는 다른 해석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본론

1. 歷代 注釋家들의 見解

郭靄春은 『素問·評熱病論』의 提要에서本篇은 陰陽交, 風厥, 勞風, 腎風 등 4가지 熱病的 病因·病機·治法 및 예후를 주로 토론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本篇에 기술된 “邪之所湊, 其氣必虛”의 논점은 후세 病因學의 발전에 기초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³⁾.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는 “邪之所湊, 其氣必虛”가 본편의 주요 쟁점으로 후대 의학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면서도, 본문에서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황은 『內經』의 注釋書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니, 王冰·吳崑·張志聰·高士宗·丹波元簡 등 대표적인 『內經』의 注釋家들은 본 구절에 대해 전혀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馬蒔⁴⁾의 경우 해석을 하고 있지만 본문을 풀어쓴 정도에 머물고 있다. 다만 明代 張介賓에 이르러 본 구절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는 본 구절에 대해 “邪必因虛而入, 故邪之所湊, 其氣必虛(邪氣는 반드시 인체의 正氣가 虛한 것을 因하여 침입해 들어오므로, 邪氣가 모여드는 것은 그 正氣가 반드시 虛하기 때문에서이다.)”⁵⁾라고 해석을 하여, 邪氣가 체내로 침습하기 위해서는 인체의 正氣虛라는 조건이 전제되어야 함을 설명하고 있다. 이후 姚止庵⁶⁾과 丹派元堅⁷⁾ 등이 張介

賓의 주장과 유사한 해석을 하였고, 근자에 출간된 『素問校釋』⁸⁾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郭靄春이 주장하는 대로 본 구절은 후대 病因學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 많은 醫家들은 질병의 발생을 서술함에 있어 본 구절을 인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구절과 관련된 논쟁이 뜨겁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의문을 풀 수 있는 실마리는 『內經』의 發病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素問·刺法論』에서는 “正氣存內, 邪不可干(正氣가 체내에 보존되어 있으면 邪氣가 침범할 수 없다.)”⁹⁾라고 하였으니, 인체의 정기가 체내에 잘 보존되어 충만하면 邪氣의 침습에 대항할 수 있으므로 邪氣가 침범할 수 없다는 뜻이다. 즉, 邪氣가 체내로 침습하여 질병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正氣의 부족이라는 발병조건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素問·生氣通天論』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더욱 분명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으니 다음과 같다.

蒼天之氣, 清淨則志意治, 順之則陽氣固, 雖有賊邪, 弗能害也, 此因時之序.(하늘의 氣가 清淨하면 志意가 다스려지니, 이 기운을 잘 따르면 陽氣가 견고해진다. 陽氣가 견고하면 비록 邪氣가 있다 하더라도 사람을 해칠 수 없으니, 이는 4계절의 次序를 따르기 때문이다.)¹⁰⁾

주지하는 바와 같이 『素問·生氣通天論』은 陽氣를 위주로 기술하고 있다. 위에서 제시한 문장은 이러한 陽氣 위주의 기본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4계절의 차서에 순응하여 陽氣를 견고하게 하면 邪氣의 침습을 받지 않는다는 發病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發病觀은 질병의 치법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게 되니, 扶正을 위주로 하는 치법이 중요시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즉, 『內經』의 질병 치료의 근본정신은 扶正祛邪으로써 扶正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內經』에서는 正氣의 보존을 중요시 했고, 질병 발생의 주된 원인을 正氣의 不足으로 인식하고 있다. 『內經』의 주석가들은 이상에서 언급한 發病觀을 중심으로本篇의 “邪之所湊, 其氣必虛”의 의미를 이해하였고, 그 결과 본 구절에 대해 별도의 설명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此非邪湊則氣虛之謂, 言氣所虛處, 邪必湊之. 故下文承以陰虛者陽必湊之, 蓋此語足以盡邪氣做人之理矣.”

2)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출판부, 1981. p.124.
3) 郭靄春 主編, 『黃帝內經素問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441.
4) 馬蒔 撰,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 229.
“凡邪之所湊于陽經者, 其陽經之氣必虛. 邪之所湊于陰經者, 其陰經之氣必虛.”
5) 張介賓, 『類經』, 서울, 一中社, 1992, .476.
6) 姚止庵, 『素問經注節解』, p139.
“氣盛則足以衛外, 邪無自而入, 故唯氣虛, 然後邪乃得而湊之也. 氣虛者陽虛也, 陽虛因足以致邪.”
7) 丹派元堅, 『素問紹識』,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pp.468-469.

8) 山東中醫學院河北醫學院 『校釋, 黃帝內經素問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437.

9)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출판부, 1981. p.285.

10)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출판부, 1981. p.16.

한편, 張介賓이 본 구절을 해석하면서 邪氣가 침습하게 되는 전제 조건으로 精氣虛를 분명하게 언급한 것에 대해 醫史學的 觀點에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張介賓은 明代 溫補學派를 대표하는 학자로 朱丹溪의 “陽常有餘, 陰常不足”의 이론을 비판하면서 “陽非有餘, 陰常不足”論을 제창하면서 陽氣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¹¹⁾. 물론, 朱丹溪가 언급한 陽은 질병의 원인인 妄動한 相火이고, 張介賓이 언급한 陽은 인체의 眞陽으로 그 개념이 다르다. 다만, 張介賓은 당시 醫家들이 朱丹溪의 理論을 제대로 고민하지 않고, 또 질병에 대한 면밀한 변증의 과정 없이 朱丹溪의 學說과 處方을 답습하는 것에 대한 비판으로 이상의 주장을 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술은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溫補學派는 明代에 형성된 補虛를 중심으로 하는 一群의 醫學流派이고, 張介賓은 溫補學派의 중견 인물로 眞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張介賓의 이러한 의학적 배경을 고려할 때, 그가 본 구절에 대해 기타 다른 『內經』의 주석가들에 비해 비교적 분명하게 正氣虛라는 전제조건을 언급한 것을 이해할 수 있다.

2. 문제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구절에 대해 王冰, 吳崑 등 주요 『內經』 주석가들은 해석을 하지 않았고, 張介賓 등은 正氣가 虛한 것이 원인이 되어 邪氣가 침습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일반적인 『內經』의 發病觀과 張介賓 등의 해석을 근거로 본 구절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邪氣가 모여드는 것은 그 正氣가 반드시 虛하기 때문에서이다.

그러나 본 구절을 반드시 위와 같이 해석해야 할 당위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發病觀에 따라서 본 구절의 해석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즉, 질병 발생의 주된 원인을 邪氣의 침습으로 이해하는 張子和의 입장에서 본 구절을 해석한다면,

邪氣가 모여드는 곳에 그 正氣는 반드시 虛해진다.

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본 구절에 대한 張子和의 해석은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그가 인

식하고 있는 질병 발생의 원인과 치법의 의미를 고려해 볼 경우 위와 같은 해석이 가능해 지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張子和는 金元四大家 中 한 사람으로 攻邪學派의 대표적인 학자이다. 그는 인체에 질병이 발생하는 원인을 邪氣의 침습으로 이해하였고, 그 결과 치법의 대원칙도 邪氣를 제거하는 것에 두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그는 汗吐下的 3法을 통해 邪氣를 제거할 것을 강조하면서, 질병이 발생했는데 補法을 사용하면 오히려 적을 기르는 것이 된다고 하였다. 특히, 그는 邪氣가 제거되면 元氣는 저절로 회복된다고 하였고, 또한 “不補之中, 有眞補者存焉.(補法을 쓰지 않는 중에 진실로 補하는 것이 보존되어 있다)”라고 하여 邪氣를 제거하기 위해 下法을 사용하는 것이 補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¹²⁾.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張子和는 질병 발생의 주된 원인을 邪氣의 침습으로 인식하였고, 그 결과 치법의 대원칙을 祛邪에 두고 있다. 이와 같은 張子和의 發病觀은 『傷寒論』에서도 그 일면을 찾아 볼 수 있다. 즉, 『傷寒論』의 경우 三陰經으로 전변되기 전의 三陽病은 주로 邪氣인 風寒邪의 침습에 의해 야기된 증상들을 나열하고 있고, 治法에 있어서는 風寒邪의 제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물론 『傷寒論』에 나타나는 다양한 발병 양태에 있어 正氣의 虛實이라는 체질적인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¹³⁾. 그러나 주된 발병원인은 邪氣인 風寒邪의 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치법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체내에 침습한 邪氣를 제거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였던 것이다.

이상에서 外感病을 주로 다루는 『傷寒論』과 邪氣의 침습을 주된 발병원인으로 인식하는 張子和의 입장에서 본 구절을 해석할 경우 張介賓 등의 해석과 달라질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다시 『內經』의 원문으로 돌아오면, 『素問·評熱病論』에서 제시한 陰陽交와 風厥 등의 질병은 모두 外感溫熱病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¹⁴⁾. 즉, 外感 熱病을 서술하는 과정에 “邪之所湊, 其氣必虛”의 내용을 언급했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本篇의 주된 내용이 外感 熱病을 서술하는 것이라면, 本篇의 發病觀은 『傷寒論』이나 張子和의 發病觀과 연관성이 깊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본 구절의 해석은 일반적인 『內經』의 인식에 바탕을 둔 해석법 보다는 邪氣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11) 陳大舜 外 역음·맹응재 外 옮김, 『各家學說』. 서울, 대성의학사, 2001, p.324.

12) 陳大舜 外 역음·맹응재 外 옮김, 『各家學說』. 서울, 대성의학사, 2001, pp.206-217.

13) 方正均, 『傷寒論』의 “中風”과 “傷寒”에 대한 考察.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6. 19(4). pp.142-143

14) 全國韓醫科大學原典學教室 編, 『類編黃帝內經』. 대전. 주민출판사. 2006. p.529.

Ⅲ. 결론

經典의 해석에 있어 중요한 것은 앞뒤 문맥을 고려하여 글자에 매몰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또한, 책 전체에 흐르고 있는 중심 사상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素問·評熱病論』의 “邪之所湊, 其氣必虛”의 구절은 人體의 正氣를 중요시 하는 『內經』의 사상을 고려한다면 “邪氣가 모여드는 것은 그 正氣가 반드시 虛하기 때문에서이다.”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앞뒤 문맥을 고려해 볼 때 오히려 “邪氣가 모여드는 곳에 그 氣는 반드시 虛해진다.”로 해석할 수 있다. 醫史學的으로 外感病을 주로 다룬 『傷寒論』이나, 邪氣의 침습을 주된 발병 원인으로 인식한 張子和의 의론을 고려할 때 本篇의 해석은 후자의 해석법이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Ⅳ. 참고문헌

1. 郭霽春 主編, 『黃帝內經素問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2. 馬蒞 撰,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3. 張介賓, 『類經』, 一中社, 1992.
4. 姚止庵, 『素問經注節解』.
5. 丹派元堅, 『素問紹識』,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6. 山東中醫學院·河北醫學院 校釋, 『黃帝內經素問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7.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素問』, 東洋醫學研究院출판부, 1981.
8. 陳大舜 外 馮·맹응재 外 옮김, 『各家學說』. 대성의학사, 2001.
9. 方正均, 「『傷寒論』의 “中風” 과 “傷寒” 에 대한 考察」,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6, 19(4).
10. 全國韓醫科大學原典學教室 編, 『類編黃帝內經』, 주민출판사, 2006.
11. 김기욱 外, 『강좌 중국의학사』, 대성의학사, 2006.